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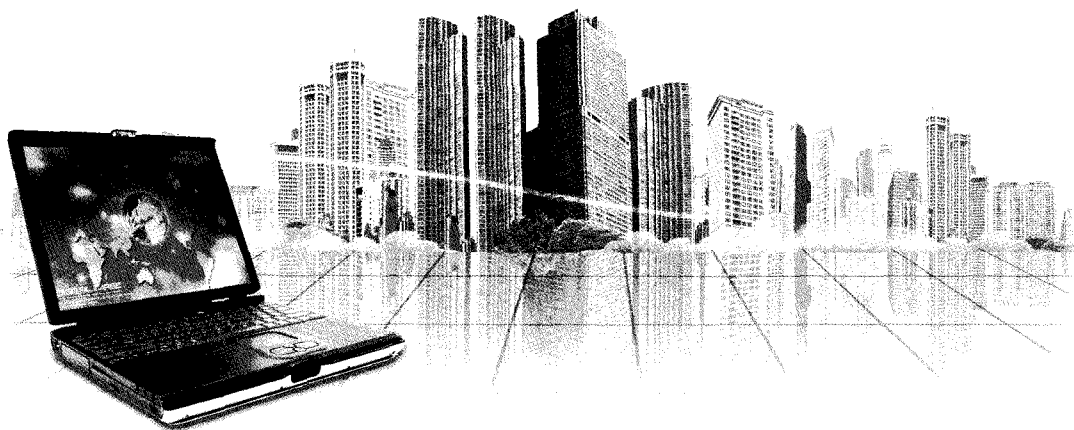
## 전자시장 내수 증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의 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fK TEMAX에 따르면 2009년 2분기 국내 전자제품의 총 매출액은 5.71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하였다. 사무기기, 소모품 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75% 성장하였고, 다른 제품군은 한 자리수 성장률을 보였다. 포토와 IT시장은 2008년 2분기에 비해 역신장세를 기록하였다.

2007년 1분기의 전자제품 내수는 3.91조원,

2분기에 5.2조원, 3분기에 5.8조원, 4분기에 5.69조원이다. 2008년 1분기에 5.43조원, 2분기에 5.55조원, 3분기에 6.09조원, 4분기에 5.85조원이다. 2009년 1분기에 5.24조원이다.

사무기기, 소모품시장은 2009년 2분기에 2,070억원의 총 매출을 올리며 75.3%의 큰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카트리지 관련 제품군은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소형 가전은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하였다.



## 전자제품의 내수

GFK TEMAX에 따르면 2009년 2분기 국내 전자제품의 총 매출액은 5.71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하였다. 사무기기, 소모품 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75% 성장하였고, 다른 제품군은 한 자리수 성장률을 보였다.

	2008년 3분기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영상음향가전	1,170	1,133	1,219	1,253
포토	237	222	243	251
생활가전	941	1,220	709	852
소형가전	939	340	458	1,011
IT	1,127	1,208	1,151	984
이동통신	1,551	1,594	1,274	1,153
사무기기소모품	116	135	188	207
계(단위:10억원)	6,089	5,854	5,242	5,712

전반적으로 두 자리수에 달하는 신장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제품군은 감소세를 보였다. 면도기는 15%로 제일 큰 폭 감소하였다.

영상, 음향가전은 2분기에 1.3조원의 매출액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하였다. LCD, 캠코더, 헤드폰 등의 제품은 두 자리 수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다른 제품은 두 자리 수의 역신장률을 기록하였다. 대형 생활가전시장은 2분기 전년 동기대비 4% 성장하였고, 8,520

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동통신은 신기술 도입과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대비 1% 성장하였고, 1.2조원이 매출을 달성하였다. 포토시장은 2,51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였다. IT시장에서, 노트북시장은 2분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8% 성장세를 기록하였지만, 데스크탑PC시장은 두 자리수의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IT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12%의 역신장세를 보였다. 총 매출액은 9,840억원이다.